

한·EU FTA 축산 / 사료부문 협상결과

조사팀 홍성수 차장

한·미 FTA에 이어 국내 농·축산업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한·EU FTA가 타결 및 가서명이 이루어졌다. 이에 본지에서는 한·EU FTA의 추진경과 및 축산/사료부문의 협상결과를 게재한다.

— 편집자 註 —

1. 한·EU FTA 협상 추진경과

- '07. 5월 협상 개시 후 '09. 3월까지 2년간 8차례 협상 진행
 - 제1차('07.5)협상에서 협상일정, 협정문 작성방안,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의견 교환
 - 제2차('07.7)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논의 시작
 - 농수산물을 포함한 상품 분야 1차 양허안 일괄 교환('07.7)
 - 제3차('07.9)협상에서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고 품목별 협상 시도
 - 제4차('07.10)협상에서 민감 품목 중심으로 양허배경을 설명
 - 제5차('07.11)에서는 상품양허, 자동차표준, 공산품 원산지기준이 쟁점
 - 제7차('08.5)협상에서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며, 자동차 관세와 표준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
 - 통상장관회담('09.1)에서 상품양허, 관세환급, 원산지, 자동차 비관세, 서비스 등 잔여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
 - 최종 제8차협상('09.3.23~24)에서 관세환급, 농산물양허 등 일부 잔여쟁점 외 대부분 합의 도출

- 대통령 유럽 순방(’09.7.7~14)을 계기로 사실상 타결을 이루고 “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0.15, 브뤼셀에서 가서명
 -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(19일 주간), 23개국 언어로 번역작업(3~4개월 소요)을 거쳐 정식서명(내년 상반기) 전망

2. 한·EU FTA 협상결과(축산/사료부문)

- 총 1,449개 농산물 품목(HSK 기준)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, 고추(270%), 마늘(360%), 양파(135%), 대두(487%), 보리(324~299.7%), 감자(304%), 인삼(754%~222.8%), 제주산 감귤(온주 밀감)(144%), 흑설탕(40%) 9개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
 - 냉동삼겹살(25%), 쇠고기(40%)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
 - 분유(176~89%)는 현행관세를 유지, 치즈(36%)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(TRQ ; Tariff Rate Quota)을 배정
- 냉장 돼지고기(22.5%), 쇠고기(40%), 보리(맥주맥(513%)·맥아(269%)), 감자전분(455%), 변성 전분(385.7%), 사과(45%), 인삼(754.3%), 발효주정(270%)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(Agricultural Safeguard) 설정
- 신선 농산물은 제3국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‘완전생산기준’을 적용
 - 축산물은 역내에서 출생, 사육된 경우에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되며,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음.
 - 채소, 과일, 화훼 등 경종 작물은 당사국이나 EU 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
-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‘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’(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)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했으며, 세부적으로는 수입요건 부과, 병해충 무발생·저발생 지역 개념을 인정하는 절차적인 내용을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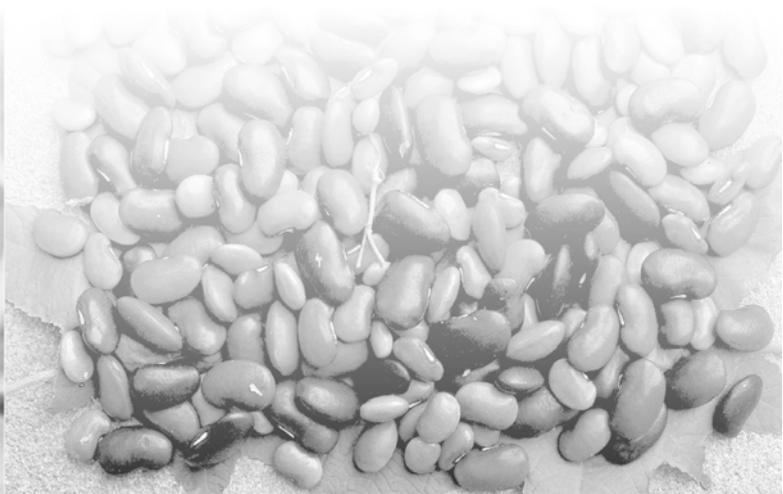
3. 영향분석

- 농촌경제연구원(KREI)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최종 협상결과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,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이 매년 조금씩 커져서 15년차에는 2,481억 원~3,17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
 -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은(KREI)은 2,369~3,06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(5년차 생산감소액 : 999~1,127억 원 수준)
 - *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돼지고기, 낙농품, 양돈,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94%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

■ 한·EU FTA 타결 후 축산품목별 생산감소 추정액(KREI)

(단위 : 억원)

품 목	한·미 FTA 이행 가정			한·미 FTA 이행 비전제		
	5년차	10년차	15년차	5년차	10년차	15년차
돼지고기	509	1,055	1,055	556	1,214	1,214
낙 농	77	325	594	97	419	805
닭고기	139	193	201	161	277	331
쇠고기	97	296	370	121	394	526
계	822	1,869	2,220	935	2,304	2,876



[참고자료 1]

농산물 양허안 개요(잠정)

■ (돼지고기) 종류별로 5~10년간 관세 유지

- 냉동삼겹살 10년, 냉장삼겹살·목살은 10년간 관세를 유지하되, 수입 급증시 농산물 Safe Guard(ASG) 발동, 냉동족 및 밀폐용기 제품 6년, 기타 5년 등으로 차별화
 - * 한·미 FTA : 냉장삼겹살·목살(10년+ASG), 그 이외(2014.1.1일 관세철폐)
 - * EU산 냉동삼겹살 수입('08) : 2.8억불 (EU산 돼지고기 전체 수입액 : 4억불)

■ (낙농품)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신 무관세 물량(TRQ)을 설정

세부 품목(관세율)	한·EU FTA 논의내용
혼합분유(36%)	10년
탈·전지(176), 연유(89)	현행유지 + TRQ(1,000톤)
치즈(36)	15년(체다치즈 10년) + TRQ(4,560톤)
버터(89)	10년 + TRQ(250톤)
유장(49.5)	10년 + TRQ(3,350톤)

* EU산 낙농품유제품 수입('08) : 1.9억불

■ (과수) 사과, 배, 오렌지에 대하여는 한·미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

- 사과(45%) : 후지 20년 + ASG, 기타 품종 10년 + ASG
- 배 (45%) : 동양배 품종 20년, 기타 품종 10년 관세 유지
- 오렌지(50%) : 계절관세 기간(9월~2월) 중 현행관세 유지 및 TRQ 제공, 비성수기(3월~8월)는 7년 관세 유지
- 감귤(144%) : 온주밀감 현행관세 유지, 맨더린 15년 관세 유지

■ (기타) 쌀은 양허제외, 대두·보리·감자·고추·마늘·양파·인삼 등 주요 품목(9개)의 핵심 세번(식용 및 신선)은 현행관세 유지 합의

[참고자료 2]

농산물 품목별 세부내용

<식량작물>

(수입액 : '06~'08 평균)

품목명	협상 결과
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○ 쌀조제품(찐쌀 포함) 10년, 배아 5년, 미강 즉시 폐지
대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용대두(487%)는 현행관세유지, 대두유(5.4~8%, 정제유 등)는 5년 철폐, 기타 대두(20~27%)는 5년 폐지 ※ 식용대두(487%) : 없음, 대두유(정제유 등) : 382천달러, 기타 대두(콩 신선/조제저장처리) : 821천달러
감자 감자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용감자(304%)는 현행관세유지, 냉동 및 건조감자는 5년 폐지 ○ 감자분(304%)은 13년 철폐, 감자플레이크(304%) 10년 폐지 ※ 식용감자 : 없음, 감자(냉동/건조) : 없음, 감자분 : 59천달러,
보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겉보리(324%)·쌀보리(299.7%)는 현행유지, 보리 기타(299.7%)는 13년 * 가공용보리(260%) 10년, 제빵용 보리가루는 5년 ※ 제빵용 보리가루 : 27천달러
옥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료용 옥수수(328%)는 5년 폐지. 팝콘용(630%), 옥수수 기타(328%)는 13년, 옥수수가루(167%)는 10년 ※ 사료용 옥수수 : 278천달러, 옥수수기타 : 5,979천달러, 옥수수가루 : 50천달러
전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밀 전분(50.9%)은 5년 폐지. 감자 전분(455%)은 15년 철폐 + ASG, 옥수수(226%), 고구마(241%), 매니옥(455%) 등 기타전분은 15년 폐지 ○ 변성전분(385.7%)은 12년 + ASG * TRQ : 2.8만톤('04~'06 평균수입액 × 80%) ※ 밀전분 : 15천달러, 감자전분 : 21,658천달러, 기타(옥수수 등) : 360천달러, 변성전분 : 31,951천달러
맥아· 맥주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맥아(269%), 맥주맥(513%) 15년 + ASG. * TRQ : 1만톤('04~'06 평균수입액 × 98%) ※ 맥아 : 699천 달러

<육 류>

(수입액 : '06~'08 평균)

품목명	협상 결과
쇠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감한 6개 세 번(40%) : 15년 + ASG * 도체와 이분도체(냉장 및 냉동), 부분육(냉장 및 냉동) ○ 육우(40%)와 식용설육(족·꼬리 등)(18%), 쇠고기 가공품(30~72%) 등 : 15년
돼지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냉동삼겹살(25%) : 10년 폐지 ○ 냉장삼겹살·목살(22.5%) : 10년 + ASG ○ 냉동족(18%), 밀폐용기의 것(30%) : 6년 ○ 기타 부위(22.5%~30%) : 5년 폐지 ※ 냉동삼겹살 : 261,109천달러, 냉장삼겹·목살 : 1,136천달러 냉동족 및 밀폐용기 : 12,381천, 기타부위 : 126,018천달러
닭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냉동(가슴살, 날개)(20%) : 13년 폐지 ○ 냉장육(18%), 냉동(다리, 기타 절단육)(20%), 닭고기 가공품(30%) : 10년 ○ 삼계탕(30%) : 10년 폐지 ※ 냉동(가슴살, 날개)수입액 : 4,282천달러 냉동(다리, 기타 절단육) : 334천달러
계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란(27~41.6%) : 15년 폐지 ○ 난황(27%) : 13년 폐지 ○ 종란 등 기타(27%) : 10년 폐지 ※ 계란 수입액 : 225천달러, 난황 수입액 : 357천달러 종란 등 기타(4개 세 번) : 86천달러
기타육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리고기(18~22.5%) : 미절단 냉동육 13년, 미절단 냉장육 12년, 절단 냉장육 10년, 절단 냉동육 13년 폐지 ○ 산양·면양고기(22.5%) : 10년 폐지 ○ 칠면조고기(18~30%) : 7년 폐지 ○ 녹용·녹각(20%) : 15년 폐지 ※ 오리고기(9개 세 번) : 417천달러, 칠면조고기 : 145천달러,

<낙농품, 사료, 가공식품>

(수입액 : '06~'08 평균)

품목명	협상 결과
분유 연유 유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탈지분유(176%)·전지분유(176%)·연유(89%) : 현행관세 유지 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1,00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90%) ○ 혼합분유(36%) : 10년 폐지 ○ 조제분유(36~40%) : 10년 폐지 - 무관세쿼타 제공 : 45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100%) ○ 유당(20~49.5%) : 5년 폐지 ※ 탈지분유 수입액 : 3,191천, 전지분유 : 643천, 연유 : 82천, 혼합분유 : 59,511천, 조제분유 : 1,501천, 유당 : 6,527천달러
치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다, 커드 및 블루바인 치즈(36%) : 10년 폐지 * 체다 치즈는 TRQ 제공(통합) ○ 커드 및 블루바인을 제외한 다른 치즈(36%) : 15년 폐지 - 무관세쿼타(TRQ)제공 : 4,56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100%) ※ 치즈(커드·블루바인 제외) 수입액 : 30,053천달러, 커드/블루바인치즈 : 13천달러
밀크와 크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밀크와 크림(지방함량 6% 이하)(36%) : 15년 폐지 ○ 크림 기타(지방함량 6% 초과)(36%) : 13년 폐지 ○ 냉동 크림(지방함량 6% 초과)(36%) : 10년 폐지 ※ 크림 기타 : 873천달러, 냉동크림 : 10천달러
버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버터(89%) : 10년 폐지 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35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100%) * 데어리 스프레드(8%) : 즉시 폐지 ※ 버터 수입액 : 1,696천달러, 데어리스프레드: 187천달러
유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장(49.5%) : 10년 폐지 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3,35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39%) ※ 유장 수입액 : 16,673천달러
사료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료용 근채류(100.5%) : 15년 폐지 ○ 보조사료(50.6%) : 12년 폐지 - 무관세쿼타(TRQ) 제공 : 5,500톤('04-'06 평균수입액 × 90%) ○ 사료용 옥수수(328%), 대두(채유 및 박용)(487%) : 5년 폐지 ※ 사료용 근채류 : 310천달러, 보조사료 : 10,307천달러, 사료용 옥수수 : 278천달러